

“아시아문화 가치 확산·지역사회 역할 강화”

ACC, 올해 '4대 전략' 뭉 댈 담았다

아시아성·동시대 담은 콘텐츠 개발 '아시아예술커뮤니티' 확대·개편 5·18 콘텐츠 '오월문화주간' 집중 향은·향습시설 설치 등 관람 개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13일 아시아 연구 및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개발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문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또 전당의 접근성·개방성 향상,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강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기반 체계화**
ACC는 올해 아시아문화자원과 함께 동시대성을 주제로 창·제작 기반 융·복합 콘텐츠 전시관을 상설 운영한다. 인문주의·자연주의를 주제로 한 참여형 전시 '물입미감-디지털로 본 자연과 휴머니즘'이 4월부터 9월까지 운영돼 관람객을 찾는다. '도시문화'를 주제로 한 '사유정원, 상상 너머를 거닐다' 또한 오는 8월까지 계속돼 관람객에게 쉽고 사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ACC 창·제작 공연 역시 공모와 시범공연, 본 공연을 꾸준히 선보이며 관객과 호흡한다. 아시아성과 동시대 가치를 담은 ACC 창·제작 공연 '동상기' (4~9월) 등이 본 공연을 앞두고 있다.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소재로 한 레퍼토리 공연 '시공간을 질하는 사람' (5월)이 올해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ACC 제공

도 감동을 이어간다. 오는 2025년 개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표 레퍼토리 공연 개발에도 착수한다.

도시문화를 기반으로 동시대 아시아 담론을 제시하는 현대미술 전시도 준비 중이다. 도시의 길과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인 걷기라는 행위를 고찰하는 '걷기, 해매기' (4~9월)가 관람객의 눈길과 발길을 이끌 예정이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도시를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펼친 '가이아의 도시' (10월) 전시도 선보인다.

ACC는 무엇보다 아시아문화자원 연구·수집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도시문화'를 주제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생활양식'을 주제로,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예술'을 주제로 선제적 연구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를 활용한 다각적

콘텐츠(무형문화유산 영상, 아시아문화지도 실감 콘텐츠 등)도 제작한다.

●**지역·국가·세계 네트워크 확장**
또 아시아 권역별 각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아시아예술커뮤니티'를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동남아·중양아 권역에 서남아·동북아 지역까지 확장,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아시아문화 교류 플랫폼으로서 역할에 집중한다. 특히 정부 중심의 소통 방식에서 문화예술 전문가·전문가, NGO 등을 아우르는 협력 채널을 만들어 ACC만의 국제교류 관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만의 정체성을 선보일 콘텐츠도 강화한다. 부서별·사업별로 흩어졌던 5·18 관련 콘텐츠를 '오월문화주간'으로 집중해 펼쳐 보인다. 오월정신과 함께하는

ACC 이미지를 확립하겠다는 포부다. 오월문화주간 관련 콘텐츠는 △오월어머니의 노래 △전통예술공연 대동 △시공간을 질하는 사람들 △창작오라토리오 빛고을 △민중미술 교류전 △민주·인권·평화 특별전이 있으며 이외에도 오월 관련 공모전, 학술 포럼, 게임, 북콘서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 가치 확산·이해**
융·복합 콘텐츠 특화문화예술기관으로서 ACC는 문화예술교육에 더욱 힘쓴다. 융·복합 기반 미래형 창·제작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인' 과정과 아시아문화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 아시아 예술문화 기반 '배움인' 과정을 연중 진행한다. ACC 대표 브랜드로서 융·복합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역시민의 문화향유 및 아시아문화의 이해도 제고에 집중한다는 복

안이다.

아시아문화로 시민과 소통하는 축제도 눈여겨봐야 할 행사다. 다양한 아시아문화를 한데 모아 즐길 수 있는 '아시아문화주간' (9월), 시대정신과 저항정신을 담아낸 영화와 전시를 선보일 '나쁜영화제' (10월), 예술·기술 분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융·복합 콘텐츠 축제 'ACT 페스티벌' (10월)이 선선한 가을 기운이 감도는 ACC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전시 관람 서비스 강화·접근성 확대**
전시 관람 환경 개선과 이용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복합전시6관 내 향은·향습시설을 조성해 전시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ACC 전시관이 융·복합 콘텐츠부터 회화 및 고전 예술작품까지 아우르는 전시가 가능해져 전시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당 접근에도 변화가 생긴다. 올해 본격적인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주 출입구인 1번 문이 폐쇄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문화원 상상 마당에서 아시아문화광장을 잇는 옥외 에스컬레이터를 신설, 대체 출입구를 확보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ACC 문화상품점도 본격 운영한다. 문화상품점으로 ACC 콘텐츠 연계 상품과 지역·국내·아시아의 우수 디자인 상품을 발굴해 일상 속 아시아 문화예술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아시아 중심의 ACC 선보일 것”

취임 1년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초대 전당장으로서 책임감 막중” “MZ세대 중심 SNS 방문 수 늘어”

“광주 지역사회에 열린 공간, 동시에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 되겠습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ACC)은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13일 '아시아문화원 통합 초대 전당장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했는데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에 1년을 잘 지나올 수 있었다.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만큼 양질의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이 전당장은 올해 ACC가 선보이는 여러 콘텐츠 중에서 △걷기, 해매기 △물입미감-디지털로 본 자연과 휴머니즘을 기대작으로 꼽았다. 이 전당장은 “‘걷기, 해매기’는 전당을 중심으로 지역의 도시문화를 예술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콘텐츠다”며 “도시의 길과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인 걷기라는 행위를 고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물입미감’은 과거 아시아 작가 작품들을 디지털로 재현한 콘텐츠다”며 “오디오, 인플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과거 원작과 재구성한 작품을 동시에 비교 감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당장은 취임 이후 ACC 접근성 강화와 대중성 확보에 주력했다. 그동안 추가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해 수직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하 에스컬레이터를 신설했으며 바닥 유도선 등을 통해 안내체계를 개선했다. 올해 역시 어린이문화원 상상 마당에서 아시아문화광장을 잇는 옥외 에스컬레이터를 신설, 대체 출입구를 확보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 전당장은 “무장애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동선 안내 영상, 수어 서비스 제공, 점자 안내지도도 비치했다”며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의 한계 때문에 전당의 접근성을 완벽하게 개선하기 어렵다. 하지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ACC 제공

만 전당에 들어오는 순간 불편하지 않도록 전시장 안내 조치를 계속 보완하겠다”

고 말했다.

젊은 세대 중심으로 ACC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화됐다는 점은 큰 변화다. 이 전당장은 “ACC가 광주 중심에 있는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낯설고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었다”며 “올해는 SNS 관련 반응이 폭발했다. 젊은 세대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었다. 입소문 바탕으로 양질의 공연·전시 콘텐츠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콘텐츠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당장은 “ACC의 최종 비전은 세계 수준의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의 선도 기관이다”며 “아시아의 주요 도시의 문화적 특수성을 포착해 사회문화적 담론을 공유하고 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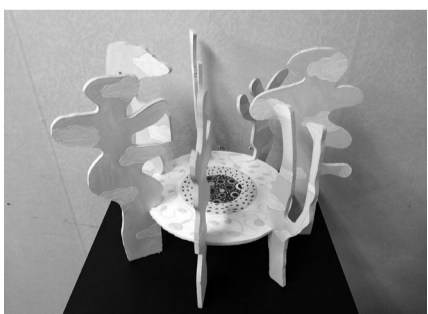
김신재 작가 ‘그림 같은 조각, 조각 같은 그림전’

18일부터 무안 55아트센터서

무안에 있는 전시관 55아트센터가 오는 18일 김신재 작가 개인전 ‘그림 같은 조각, 조각 같은 그림전’을 연다. 새봄맞이 이웃작가 초대 기획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4월15일까지 계속된다.

‘그림 같은 조각, 조각 같은 그림전’에 선보이는 작품은 평면적 회화와 입체적 조형을 특징으로 한다. 전시를 오픈하는 18일 오후 5시 ‘작가와 대화’도 진행한다.

김신재 작가는 목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동경 다마미술대학 대학원 졸업했으며 주요 작품으로 목포대학교 교정에 설치된 박태열 열사 추모 조형물이 있다. 박재용 55아트센터 대표는 “무안에서 가까운 이웃 도시 목포의 김신재 작



김신재 작 '맑은 영혼들의 초대'

가 초대전을 시작으로 전시공간이 필요한 이웃 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 하고, 우리 지역 작가 알리기와 지역예술인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전시 관련 내용은(061-281-5570, chongho21@hanmail.net)으로 문의. 도선인 기자

구성진 판소리에 빠져볼까?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서 이틀간 적벽가·열사가 선힌

2023년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판소리 감상회’가 오는 26일 오후 3시와 3월26일 오후 3시에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펼쳐진다.

‘판소리 감상회’는 2022년 새롭게 선보인 레퍼토리 공연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판소리를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한 공연이다.

‘판소리’는 창자가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소리와 아니리, 너름새로 구연해 우리나라의 시대적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와 유

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로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오는 26일 공연에는 광주시립창극단 창작부 박은중 상임단원의 소리와 김준영 상임단원의 북장단에 맞춰 판소리 ‘적벽가’를 감상할 수 있다. 판소리 적벽가는 중국 소설인 삼국지연의 내용 중 적벽대전 장면을 중심으로 차용해 만들어진 소리이다. 힘차고 구성진 고음과 무게감 있게 내려놓는 저음의 대조가 돋보이는 소리로 장단을 넘나들면서 변화하는 기교와 뛰어난 감성 표현으로 청중들을 사로잡는다.

3월26일 공연에는 양은주 명창의 소리와 김규형 명고의 북장단에 맞춰 창작 판소리 ‘열사가’ 무대가 펼쳐진다. 열사가는 1945년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항일운동의 상징적 영웅인 ‘이준, 안중근, 윤봉길’ 열사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판소리로 일제의 부당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항일에 대한 영웅적 삶의 한 국면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세 명의 열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해 들을 수 있다.

김규형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은 “판소리를 통해 전통문화예술의 역사적 가치와 정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연을 마련했다. 특히,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 판소리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계승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중강 국악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되는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판소리 감상회’는 전체 관람가로 전석 무료이며 광주 문화예술회관과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